



# 지동원 플레이에 '박지성'이 보인다

## 왼쪽·중앙공격 모두 소화... 후계자 낙점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베스트 11' 운곽

축구대표팀이 6월에 치른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 나설 '베스트 11'의 운곽을 사실상 완성했다.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은 3일 세르비아전과 7일 가나전을 치르면서 '박지성-이영표 공격 체우기'와 '포백(4-back) 완성'의 두 가지 실험에 중점을 뒀다.  
 올해 초 2011 아시안컵을 통해 대표팀 자

원을 1차적으로 걸러낸 조 감독은 2월과 3월에 이어진 터키(0-0무) 및 온두라스(4-0승)전을 통해 2차 검증에 끝냈다.  
 이 과정에서 조 감독은 왼쪽 스트라이커로 박주영(AS모나코), 오른쪽 측면으로 이청용(불턴), 중앙 미드필더로 이용래(수원)-김정우(상주)-기성영(셀틱) 조합을 낙점했다. 중앙 수비를 맡는 홍정호(제주)-이정수(알 사드)와 오른쪽 풀백의 차두리(셀

틱)도 일찌감치 베스트 멤버로 확정했다.  
 하지만 조 감독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떠난 왼쪽 날개와 이영표(알 힐탈)의 왼쪽 풀백 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술 실험을 하면서 최적의 선수를 찾는 데 애를 썼다.  
 조 감독은 세르비아전에서 왼쪽 날개에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을 써보려고 했지만 컨디션 난조로 이근호(갑바 오사카)에게 기회를 줬고, 김영권(오미야)에게는 왼쪽 풀백의 중책을 맡겼다.  
 이근호는 결정적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김영권은 애초 공격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왼쪽 풀백으로 낙점 받았다.

조 감독은 7일 가나전에서 왼쪽 날개에 지동원(전남)을 기용하는 실험을 이어갔다.  
 지동원은 전반 10분 날카로운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뽑고, 후반 인저리 타임에는 구자철이 넣은 결승골의 시발점이 된 헤딩슛을 날려 2-1 역전승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조 감독은 왼쪽 날개에 지동원을 확정하고, 구자철에게는 왼쪽 측면 백업과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지동원은 특히 왼쪽 날개뿐만 아니라 박주영과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윌톤 스트라이커의 역할까지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표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했다.  
 조 감독은 "지동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며 "왼쪽 공격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경기를 하면서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로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함성이 작아요”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가나의 평가전. 지동원(9번)이 첫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처 입은 타이거 우즈, US오픈 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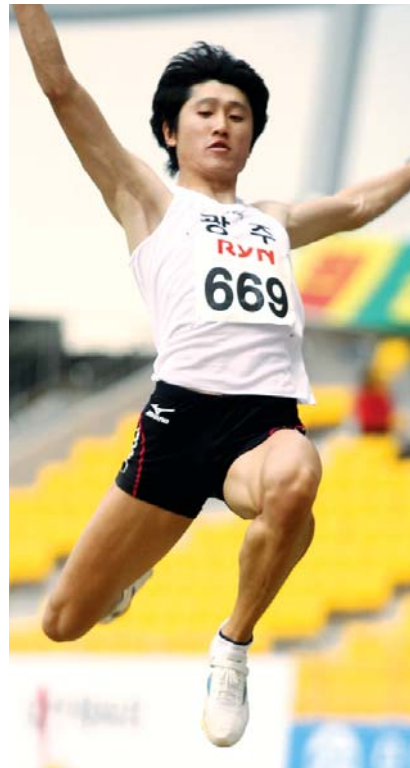
타이거 우즈(미국)가 메이저 골프대회 중 하나인 올해 US오픈에 불참한다.  
 우즈는 왼쪽 무릎과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1994년 이래 처음으로 US오픈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즈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US 오픈에 참가하지 못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지만 지금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나중을 기약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시합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출전하게 되면 왼쪽 다리의 상처가 도질 위험이 있다"며 "무릎과 아킬레스건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메릴랜드주 베데스타의 콩그레스빌 골프장에서 열린다. 우즈는 그러나 이달 30일 시작하는 AT&T 내셔널 대회와 올해 남은 다른 두 개의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과 PGA 챔피언십에는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학 시절부터 왼쪽 무릎 부상에 시달렸던 우즈는 지난 4월 마스터스 대회에서도 부상이 재발해 한동안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왼쪽 무릎과 아킬레스건 부상을 이유로 기권하기도 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승리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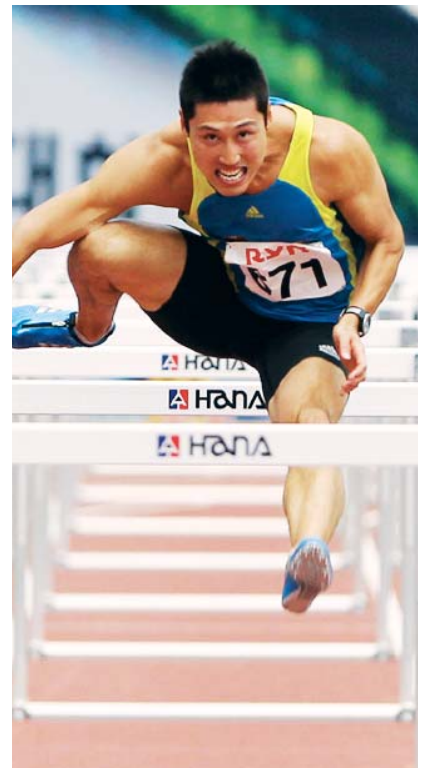
## 육상 한국新 '광주시청 3총사' 발에 달렸다



세단뛰기 김덕현



400m 계주 임희남



110m 허들 박태경

### 전국 선수권 출전 기록단축 도전

김덕현, 임희남, 박태경 등 광주시청 육상 3총사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앞서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예행연습에 나선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9~1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 남자 계주팀과 김덕현(광주시청) 등 간판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역시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다. 임희남(광주시청)과 전덕형(경향대), 김국영(안양시청), 여호수아(인천시청) 등으로 구성된 남자 계주팀은 지난달 중국에서 치러진 아시아그랑프리에서 39초04를 찍어 23년

묵은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월부터 태국에 80여 일 동안 머물면서 바통 터치 연습에 매진한 결과 성적으로 나오면 이미 대구 세계선수권대회 기준기록과 내년 런던 올림픽 출전 기준기록을 충족한 대표팀은 바통 터치 기술을 다듬어 38초대까지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도 최근 국제대회 연속 우승의 기세를 이어 한국 신기록 작성에 도전한다. 지난달 대구국제육상대회와 아시아그랑프리를 연속으로 제패한 김덕현은 "17m50까지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밖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창던지기 동메달리스트 박재명(대구시청)과 110m 허들 동메달리스트 박태경(광주시청), 10종 경기 은메달리스트 김건우(문경시청)가 출전해 기록 단축에 도전한다.  
 또 세계 정상급 기량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보 대표팀의 김현섭(삼성전자)과 변영훈(대구시청)이 20km 경기에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여자부에서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연경(문경시청)과 정순욱(안동시청)이 각각 100m 허들과 멀리뛰기에 출전해 그간의 훈련 성과를 확인한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최원희(SH공사)와 임은지(구미시청)도 이번 대회에서 최근의 부진을 떨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선수다.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주세요

**신양파크호텔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깁시다!!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